

19세기 이후 신흥산업도시와 건축

파리의 불바르(오스만) vs 이탈리아의 구릉도시(카밀로지테)

1. 시민을 위한 도시/건축

- 도시와 건축디자인에 나타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이론은 귀족과 왕족 또는 지주를 위한 건축물(성당, 수도원, 청사 등)에 나타남
- 찰스디킨즈의 소설, 공산당선언, 마르크스와 엥겔스로 대변되는 이 시기의 서민계층은 복지와 콜레라와 같은 도시질병에 심각하게 노출
- 서민계층의 성장과 신흥산업도시를 이끈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건물은 공장 또는 투기꾼이 만든 주택
- 서민과 노동계층은 위생시설과 함께, 생활전반의 어메니티를 요구함

1) 영국의 빈민구제 정책

- 1851년 영국의 알버트공(빅토리아여왕의 남편)은 영국에서 개최한 만국박람회에 가족을 위한 주택을 설계하여, 모델하우스를 전시할 것을 명
- 옥타비아 힐과 같은 네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선구자가 등장하여,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 운동을 실천을 하였으며, 알리스 공주(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)의 후원을 받음
-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마을회의, 저축클럽, 연극활동과 같은 공동체적 문화환경 제공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, 오픈스페이스 확충 등의 캠페인을 벌임

2) 공중위생법

① 빈민법

- 1848년 중앙에서 도시생활의 최저기준 규정
- 위생시설, 배수설비/하수설비/상수공급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
- 비용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, 어려움

② 지방법

- 1875년 주택건설의 상세규정 마련
- 위생시설 설치 강제 및 인프라 설치에 관한 규정 상세히 다룸*)
- 규정의 대부분은 중세의 "시에나"의 도시관리규정에서 영향을 받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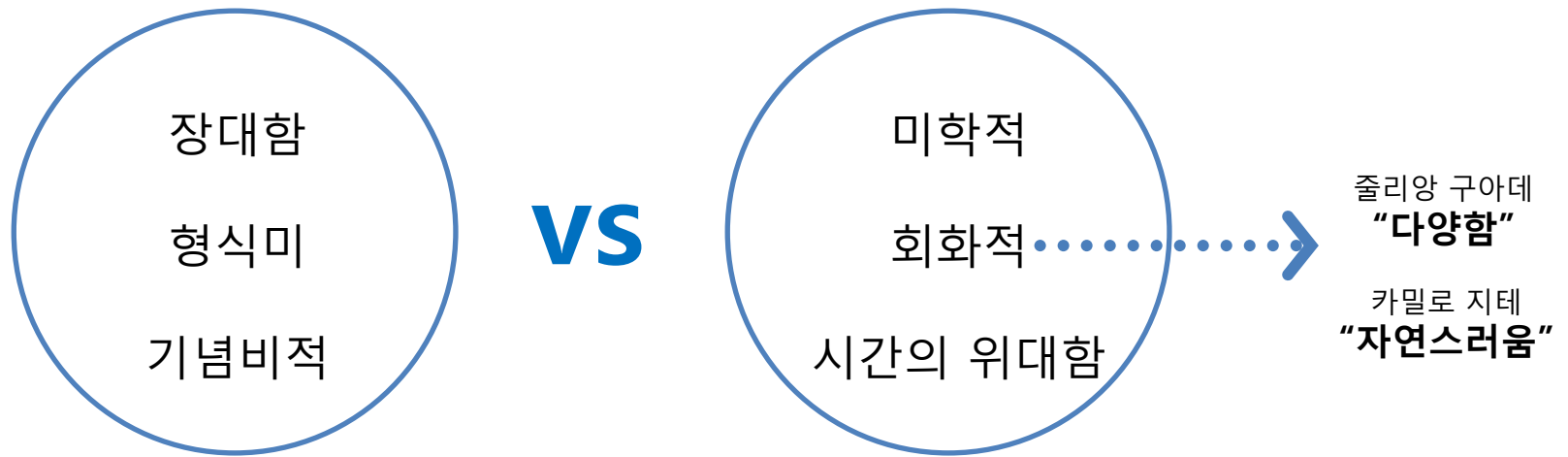
*) 지방법의 인프라설치 관련 핵심조항

1. 신설도로의 지반고, 폭, 시공과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
2. 안전성 확보, 화재예방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 벽, 기초, 지붕, 굴뚝 등의 구조에 관한 사항
3. 건축물의 환기 및 건축물 주변으로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충분한 공지확보
4. 수세식 화장실, 옥외화장실 설치
5. 우수, 오수의 분리와 같은 배수체계
6. 마차길은 11m, 모든 길은 7m, 15m² 이상의 뒷마당을 가질 것

2. 19c 산업도시 계획의 전개

1) 오스만의 파리 불바 vs 카밀로지테의 이탈리아 구릉도시

- 1870년대이후의 유럽의 도시재개발 규범



- 파리 : 베르사이유궁에서 보여준 바로크식 도시 계획의 경험

- 주요 건축물 및 기념물 사이에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한 광로 -> 로마의 재건에서 볼 수 있음
-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수 없었고, 왕궁에서 최상의 시선을 확보해줌
- 도시거주의 위생 및 쾌적성을 위해 구조를 전면 개편

- 이탈리아 : 미적원리에 따른 회화적 도시계획

- 계획의 불규칙성(이슬람도시/지형수용)
- 회화적 건축가들의 임의적 결과
- 풍경화에서의 자연스러움을 조경의 원리 추출
- 중세시대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도로, 광장의 디자인 원리 추출(시에나)

2) 오스망의 파리 불바

① 파리 개조 계획

-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파리지내 인구증가는 미궁같이 얽힌 도로, 만성적인 교통혼잡, 비위생적 주택들, 질병에 노출
- 부유한 계층은 교외로 이동하고, 중심가는 빈민화되었고, 정치적 위험을 동반하게 됨
- 1852년~1870년 나폴레옹3세에 의해 파리 개조 계획 결정 : 파리의 근대화 목표
- 오스망은 약 17년간 파리지사를 지내며, 파리지시의 근대화를 총괄 담당한 관리
 - ▶ 공중위생 / 거주지의 쾌적성에 대한 노력
 - ▶ 1848년 혁명 이후, 경찰을 향해 무기를 던지는 군중에 대한 통제
- 파리 중심에서 외곽까지를 대상으로, 도로/대로, 배수/급수 설비, 건축물, 공공기념물, 공원, 광장,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대적인 계획임
 - ▶ 장피에르 바릴레 드샹프 : 파리의 공원과 농원 조성, 도로설계
 - ▶ 빅토르 알타르, 테오도르 발뤼, 가브리엘 다비우, 자크 이토르프 등 건축물 설계에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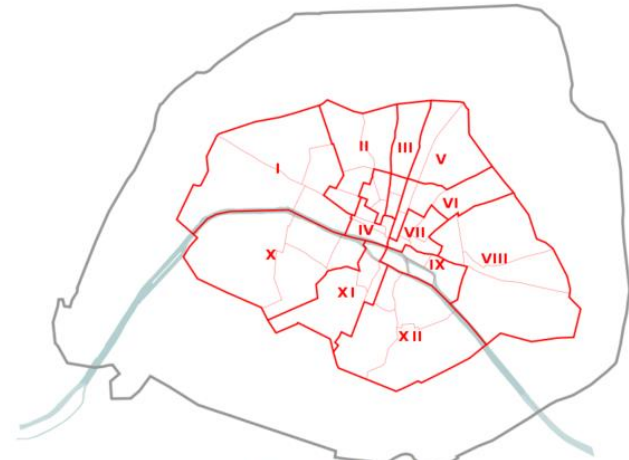
② 도시계획

❖ 토지의 이용

- 1852~1870년 사이 왕의 절대권력으로, 약 4만여 채의 건물이 철거되어 새로이 건설됨
- 초기에는 귀족소유의 토지는 헌납 받았으며, 후기로 갈 수록 필요했던 자금은 구획된 필지를 부동산에 매각하여 충당
- 12개의 지구로 분할되었으며, 1919년 이후 20개 지구로 증가하였으며, 지금에 이름

❖ 상/하수

- 약 600km의 수로 건설
- 샤토티에리강에서 물을 끌어와 수로를 통해 저수지에 물을 모아두고, 상수로 공급
- 각 가정과 연결되도록 도로하부에 약 340km의 하수도를 건설하여, 하수를 처리
- 빗물을 모아 강 하류로 방류하는 배수설비도 갖추



▲1860년, 구 시가지의 구획도



③ 제2 제정양식 : 19세기 후반 프랑스 건축물

- 19세기 후반기에 국제적으로 성행한 **건축**양식으로, 나폴레옹 3세 양식, 제2제정 바로크 양식, 보자르 양식이라고도 함.

- 1) 건물은 규모가 크고, 가능하면 독립적인 구조로 지어진다.
- 2) 평면은 정4각형이거나 정4각형에 가까우며, 방은 축을 이루도록 배열되어 있다.
- 3) 외부에는 고전적인 상세부가 매우 풍부히 사용되었다.
- 4) 보통 높고, 때로는 볼록하거나 오목한 맨사드 지붕(사방으로 꺾인 이중경사지붕으로 아래쪽이 위쪽보다 경사가 더 급함)이 건물 외관의 파격을 이룬다.
- 5) 중앙부와 양끝 부분에 별동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이곳에 더 높은 맨사드 지붕을 얹는다.
- 6) 일반적으로 활 모양 기초부분을 갖춘 기둥들 위에 또 다른 기둥열을 포갠 형식이거나 기둥 위에 또 다른 기둥을 올려 몇 층 높이로 만든 형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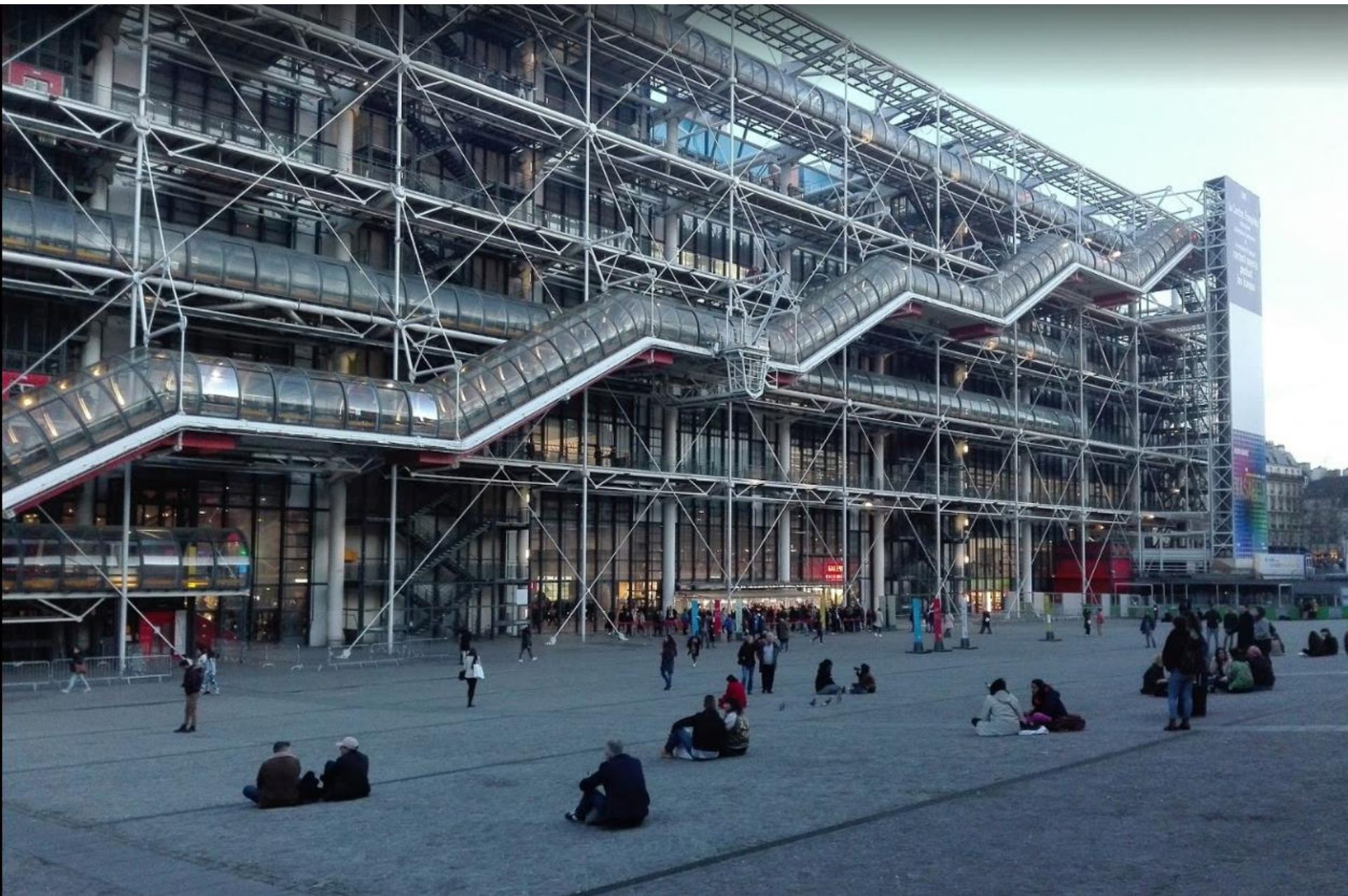


[오스만대로변의 보자르양식으로 지어진 건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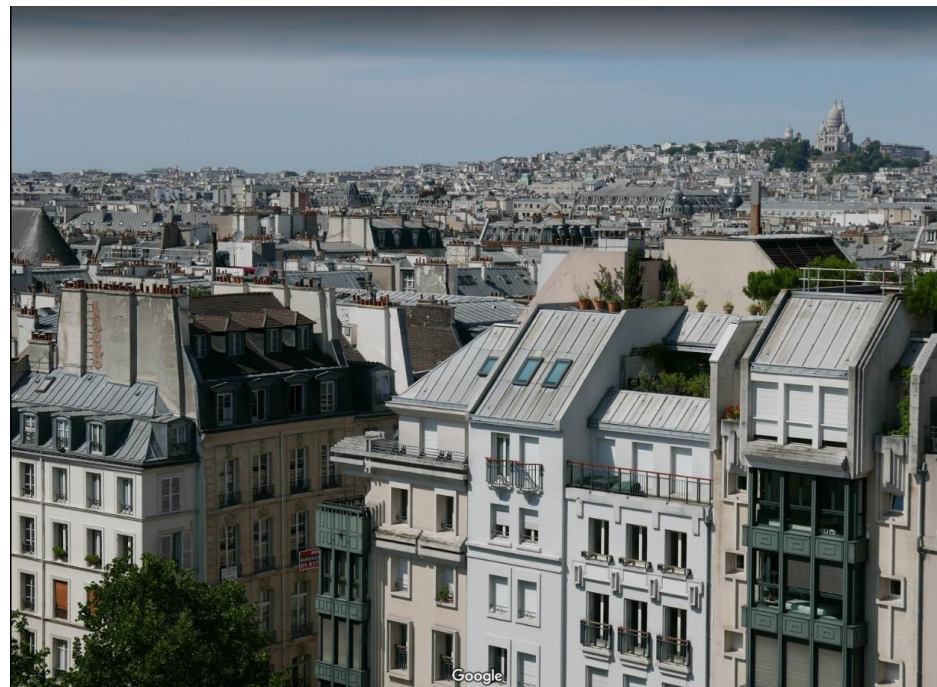
[1980~1990년대의 그랑 프라제]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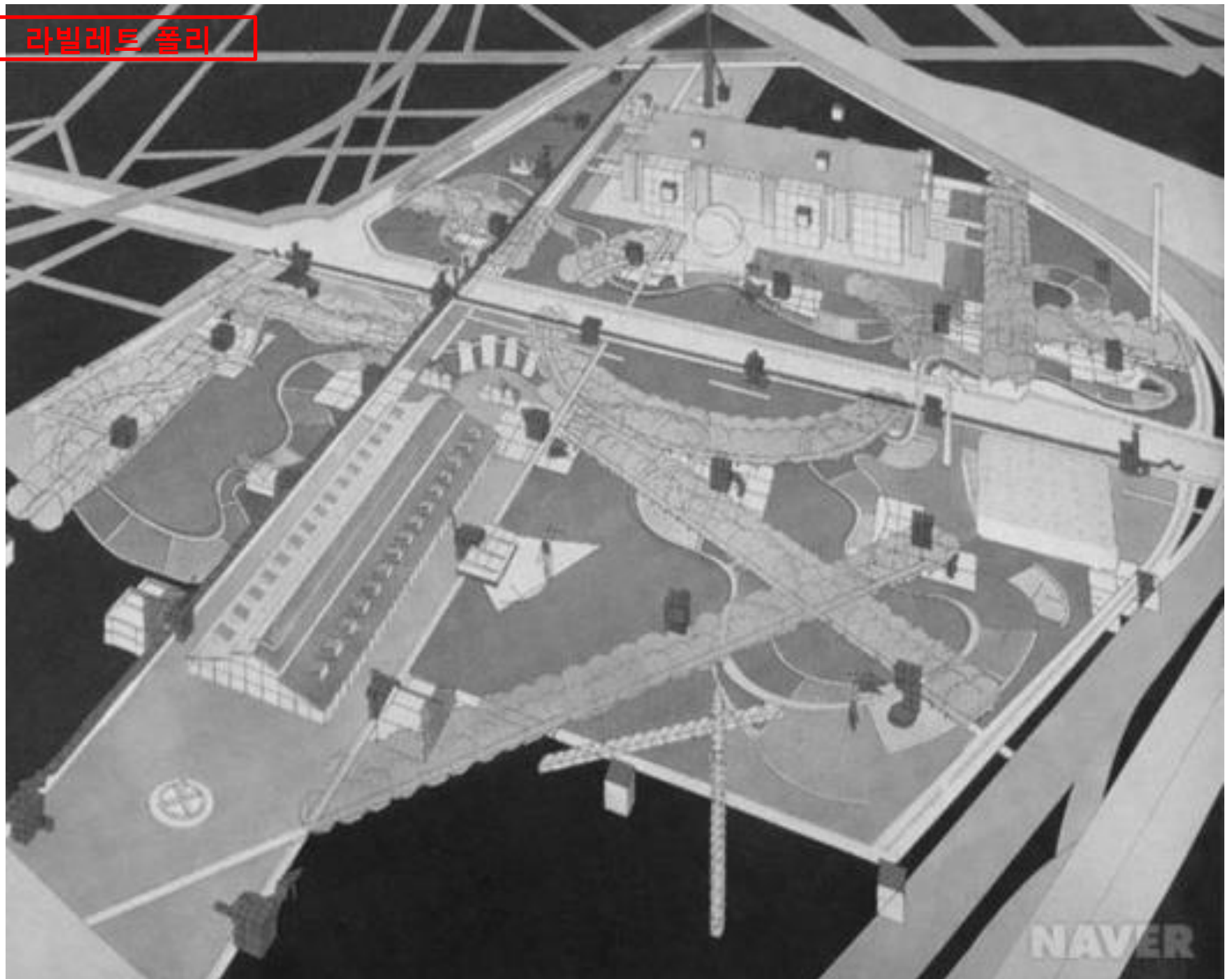
퐁피두센터



라빌레트 폴리



<http://blog.naver.com/perfectnick>








3) 카밀로지테의 이탈리아 구릉도시

① 미적 계획의 요구

- 교통, 토지의 고도이용, 특히 위생상의 개선과 같은 기술적 진전과 절대권력을 위한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 도시계획기법(광로, 가로수, 기념비적 건축물)에 반기
- 규칙성의 지루함과 획일화된 경관 비판
-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의 미적 결핍, 예술적 발전의 후퇴에 대한 맹비난

② 카밀로지테의 회화적 도시

- 계획의 불규칙성(이슬람도시/지형수용)
- 회화적 건축가들의 임의적 결과
- 풍경화의 자연스러움을 조경 원리로 추출
- 중세시대의 이탈리아 도시에서 도로, 광장의 디자인 원리 추출(시에나)

- 
- ▶ 건축물의 보다 강력한 돌출
 - ▶ 건축선의 보다 잦은 단절
 - ▶ 꾸불꾸불한 길
 - ▶ 똑같지 않은 도로폭
 - ▶ 높이가 서로 다른 건물
 - ▶ 떠있는 계단
 - ▶ 한 쪽이 트인 주랑
 - ▶ 발코니, 박공지붕.....

[이탈리아 시에나]



③ 이탈리아 시에나의 코스티투토

- 시에나는 요새도시 중 하나로, 험한 지형에 건설->비정형의 도시가 능선을 따라 Y자형으로 확대됨
- 13세기 도시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조례 마련하여, 복잡했던 도시구조를 개별건축물에 규제를 가하는 형태로 관리
- 가로와 폭, 창문의 형태와 가로로 열리는 개구부의 형태,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이나 가로와 갖는 관계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 마련*)



*) 코스티투토

- 시에나의 가로는 지형에 의해 휘어있었고, 건축물은 제멋대로 튀어나와 있었음
- 가로와 건축물의 관계
 - ▶ 가능한 모든 가로가 끝에서 끝까지 직선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 처방
 - ▶ 기준은 건축물의 코너, 기둥, 탑 등으로 삼음
 - ▶ 기준점과 기준점을 연결하여 규제선을 두고, 규제선을 넘은 건축물은 철거대상으로 간주

- 가로의 폭

- ▶ 주도로 폭은 4~5.9m로 돌로 포장하였으며, 그밖의 '카비나(공공도로)'는 3.5m, 성당 옆의 도로는 5.9m 확보
- ▶ '트레세피오'는 두집사이의 아주 좁고, 그 위로 아치가 걸려있기도 하는 공간을 말하는데, 사람들은 이 도로에 가정하수를 처리하여, 소유주간에 소송이나 분쟁이 많았음

- 건축물의 돌출

- ▶ 가로내 건축물의 돌출부(발코니)나 돌출창문은 가로를 어둡게 하였으므로, 돌출길이를 1.75m이내로 한정하였음
- ▶ 아랍의 피나와 같이 좁은 가로에 식품이나 공예품을 사고파는 경우, 지나치게 가로를 침범한 주택은 벌칙금 도입







④ 줄리앙구아데

- 1900년 초기 프랑스 에콜 데 **보자르**의 확장
- 카밀로지테의 견해 지지
- 오직 **시간만이 최고의 예술을** 만들 수 있다고 주장
 - ▶ 아름다운 건축물(노트르담, 정의의 궁전 등)과 아름다운 광장(산마르코광장, 시에나캄포광장)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질 수 없고, 몇세기에 걸쳐 아름다움을 완성시켜 감
- **쓸모 없는 규칙성**이야말로 한 눈에 들어올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
 - ▶ 광대한 규모는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, 정형성과 대칭성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 예측가능하고 단조로움
- 회화적 도시계획에서 **교통계획은 주요 난제**
 - ▶ 도로는 예술적이어야 함
 - ▶ 기회와 시간을 위한 교통의 요구(최단거리)는 아름다운 건축물(클리뇌 대성당 등)을 철거하는 이유로 작동함
- 고전주의는 예술의 영원한 투쟁의 결과이며, **유산은 세상의 찬탄을 받으면서 남겨진 것**
 - ▶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, 그 성격을 추상화하는 일은 우스꽝스러운 일임

⑤ 도시미 운동

- 도시미화는 파리개조계획에서 기인하였으나,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천명됨
 - ▶ 다니엘 번햄(시카고 학파)이 건축가와 조각가, 미술가를 선발하는 총괄을 맡음
 - ▶ 프레데릭 옴스테드가 박람회장 배치
 - ▶ 파리개조계획의 웅장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올라, 미국의 각 도시들(보스턴, 캔사스, 미주리, 세인트루이스 등)에 반영
 - ▶ 유럽여행을 다녀온 미국의 건축가들은 프랑스고전주의의 장대함이 역사상 가장 고도의 문명을 표현하고 발전된 양식이라 생각
- 도시미화운동에 대한 19세기의 평가
 - ▶ 도시미화운동의 핵심인 공공건물의 고전적 기념성은 고속도로 건설 등 도시효율주의에 굴복
 - ▶ 기디온(1941)은 바로크의 재생산처럼 보이는 박람회장을 퇴보라고 말함
 - ▶ 19세기 중반 유럽(영국)의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됨
- 2000년 전후, 도시미화 운동의 전개
 - ▶ 로스엔젤레스의 문화운동
 - ▶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
 - ▶ 파리의 그랑 프라제

지역발전차원에서 시카고 변두리에 박람회장을 만들고,
시청을 낮은 건물로 둘러싸게 하고,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게 계획하여, 시청의 돔이 다시 변두리의 높은 건물을 압
도할 수 있게 배치함



- 주택지내 일반도로(ordinary street), 교통량이 많은 대로(Avenue), 도로에 좁은 공원이 있는 광로(boulevard)형태의 도로체계 제안
- 호수의 매력을 증대시키고, 자연의 아름다움을 개발하기 위한 호반도로, 매립, 해안선 직선화, 해수욕장, 위락지구 건설
- 도시 심장부에 시빅센터를 구상
- 1909년 다니엘 번햄의 시카고 플랜

